

1. 사림

사림의 등장과 성장	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구 : 세조의 즉위에 협력한 공신• 사림 : 온건파 신진사대부 계승한 지방 사족– 성종 때 적극 진출– 왕도 정치 추구 ▶ () 중시– 향촌 자치 주장– 훈구의 비리와 부정 비판 ▶ () 발생	<table><tr><td>무오사화(연산군)</td><td>사초 ()</td></tr><tr><td>갑자사화(연산군)</td><td>폐비 윤씨</td></tr><tr><td>기묘사화(중종)</td><td>()의 개혁</td></tr><tr><td>을사사화(명종)</td><td>외척간의 권력 투쟁</td></tr></table> <p>▶ 사림의 집권 : (), ()을 기반으로 세력 확대</p>	무오사화(연산군)	사초 ()	갑자사화(연산군)	폐비 윤씨	기묘사화(중종)	()의 개혁	을사사화(명종)	외척간의 권력 투쟁
무오사화(연산군)	사초 ()								
갑자사화(연산군)	폐비 윤씨								
기묘사화(중종)	()의 개혁								
을사사화(명종)	외척간의 권력 투쟁								

2. 붕당정치

붕당의 형성	붕당 정치의 성격				
정치적·학문적 성향이 비슷한 사림끼리 () 형성 ▶ 공론을 앞세워 붕당 정치 전개	<table><tr><td>긍정적</td><td>상호 비판과 견제 가능, 재야 사족의 의견도 폭넓게 수용</td></tr><tr><td>부정적</td><td>관직과 경제적 이권을 놓고 벌이는 권력 다툼의 성격</td></tr></table>	긍정적	상호 비판과 견제 가능, 재야 사족의 의견도 폭넓게 수용	부정적	관직과 경제적 이권을 놓고 벌이는 권력 다툼의 성격
긍정적	상호 비판과 견제 가능, 재야 사족의 의견도 폭넓게 수용				
부정적	관직과 경제적 이권을 놓고 벌이는 권력 다툼의 성격				

붕당의 흐름

선조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외척 정치 청산, () 임명 문제), 동인 → 남인과 북인
광해군	() 집권 → 서인과 남인 배제, 인목 대비 폐비 등 정치적 무리수
인조	반정을 주도한 서인이 정국 주도, 남인 참여
현종	두 차례의 () 발생 → 남인이 정국 주도권
숙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차례 () → 특정 붕당이 권력 독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 → 왕위 계승 문제로 대립 → 붕당 정치의 폐단 심화

탕평정치

	영조	정조	<div><div>사료탐구</div><div>※ 영조의 탕평책 ※</div><p>붕당의 폐해가 요즈음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사문 문제에 분쟁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한쪽 편 사람들을 모두 역당으로 몰아붙였다. …… 근래에 와서 인재의 임용이 당목에 들어 있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니, 이러한 상태가 그치지 않는다면 조정에 벼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지금 새롭게 중창할 시기를 맞이하여 어찌 잘못을 고치고 새로운 정치에 힘을 생각이 없겠는가. 유배된 사람들은 그 경중을 헤아려 이조가 탕평의 정신으로 수용토록 하라. 나의 이 말은 위로는 종사를 위하고 아래로는 조정을 진정하려는 것이다.</p><div>『영조실록』</div></div>
탕평 방식	– ()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척 세력 제거– 노론·소론·남인 고루 기용– () 설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원 정리– 이조 전랑 권한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 설치– () 축조	
한계점	– 외척 세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붕당 폐단 존속– 강력한 왕권으로 정쟁 억압– 정조 사후 세도 정치 전개	
세도정치			

세도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개 과정– 정조 사후 순조~철종– 3대 60여 년간– 외척 가문이 권력 장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왕권 약화, 언론 활동 기능 상실– 정치 기강 문란()– 농민 수탈 ▶ ()의 문란
--	---